

코로나19가 일본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¹⁾

(원저자)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축산종합대책부
허 덕*

1. 머리말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구조나 소비자 행동양식과 니즈(needs) 변화와 더불어 젊은 이를 중심으로 물고기(생선, 生鮮) 기피 등의 영향으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이후에는 비자 발급요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일본 국내에 큰 인바운드²⁾(inbound) 수요를 가져왔다. 이어 화우와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출 확대도 이루어져 국내산 축산물 관련 국내외 수요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³⁾.

1) 이 글은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2413.html)의 내용을 번역·보완·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코로나19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의한 일본 축산부문 영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1편) 최근의 세계 식육 수급 동향과 일본의 식육 수입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코로나19가 각국 낙농산업에 미친 영향-세계, 일본, 미국, EU, NZ, 중국-’,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2호(2022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2) 인바운드(inbound)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만큼 마케팅에 있어서는 다음의 의미이다. 인바운드 마케팅: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 인바운드 링크 또는 백링크: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링크(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원래 인바운드(inbound)라는 용어는 텔레마케팅의 한 형태로 고객으로부터 온 전화를 콜 센터에서 받아 처리하는 것. 즉, 카탈로그에 의한 통신판매 시 전화 수주 또는 지원 센터 등이 인바운드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콜 센터로부터 고객에게 정보 발신을 행하는 것을 아웃바운드(outbound)라고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s://terms.naver.com/>)

3) 일본의 농축업 및 무역 정책에 관해서는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1편) 일본의 농업 현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2편) 일본의 곡물 수급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3편) 일본의 축산물 및 사료 수급 현황과 주요 대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4편) 일본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5편) 일본의 TPP 추진 경과 및 곡물 관련 대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2020년 2월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일본 축산물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행동제한이나 외출자제에 따른 가정 내 수요, 이른바 ‘집콕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수차에 걸친 긴급사태 선언이나 인바운드 수요 소멸 등으로 외식 수요는 괴멸적인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영향이 축산물 가치에도 영향을 주었다.

7차에 이르는 감염 확산기를 경험하고 사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with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축산물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영향, 발생된 과제와 향후 축산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가 축산물 수요에 미친 영향

(1) 가계 소비에 관한 동향

2020년 2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출 자제의 영향으로 ‘집콕 수요’가 왕성하게 되어 식육의 가계 소비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9년 전국 1인당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8년 대비, 쇠고기는 97.9%, 돼지고기는 98.7%로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들어선 2020년과 2021년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돼지고기 소비는 가정 내 수요의 급속한 확대가 이루어진 2021년 들어 106.4%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표).

또한, 닭고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도 2018년 대비 110.2%로 매우 높은 소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식육의 가정 내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축산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g)	2018년 대비(%)	소비량(g)	2018년 대비(%)	소비량(g)	2018년 대비(%)
2018년	2,259	-	7,232	-	5,668	-
2019년	2,211	97.9	7,139	98.7	5,703	100.6
2020년	2,438	107.9	7,781	107.6	6,359	112.2
2021년	2,302	101.9	7,695	106.4	6,245	110.2

주: 전국 2인 이상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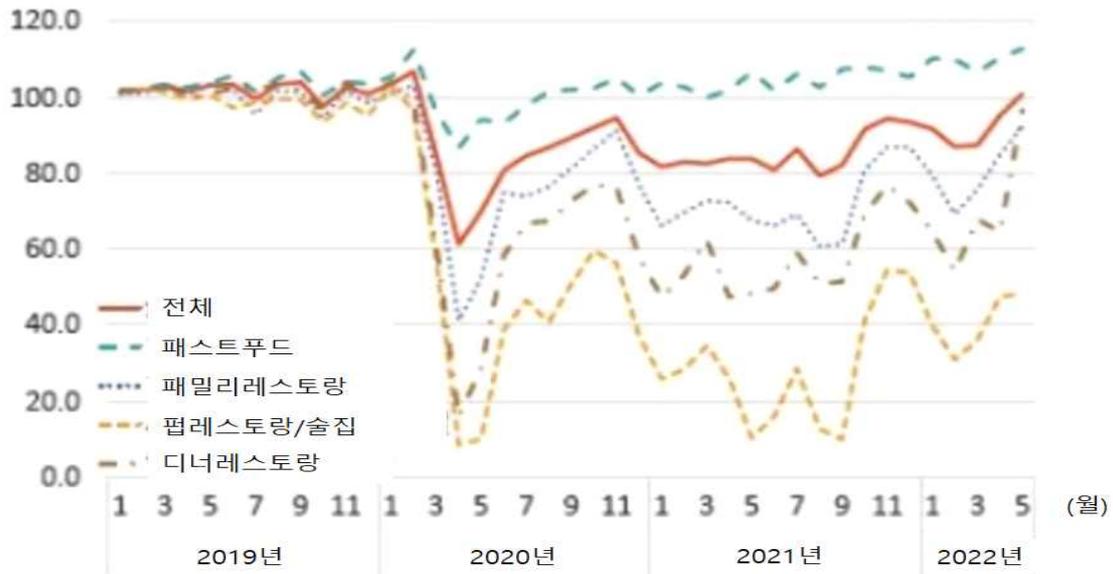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2) 외식 산업 동향

2020년 2월 이후에는 소비자의 외출 자제로 인바운드 수요 급감이 겹치면서 외식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림 1>은 2018년의 외식산업의 매출액을 100으로 하여 코로나19 사태 전(2019년)과 코로나19 사태 후(2020년 이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외식산업 전체 매출액(붉은 선 그래프)은 2020년 2월 이후 곤두박질쳐 그 해 4월에는 61.4를 기록하였다. 그 후도 잦은 긴급 사태 선언과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계속되자 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전체 매출에서는 대체적으로 90 안팎의 회복에 그쳤다.

그림 1 외식산업 매출액 추이



주: 2018년을 100으로 한 지수의 추이

자료: 일반사단법인 일본푸드서비스협회, 「외식산업시장동향조사」.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업체별로는 침체가 심한 것이 긴급사태 선포 시에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펍레스토랑/술집(이자카야)’이며, 2020년 4월에는 8.6이라는 끔찍한 상황에 빠졌다. 그 뒤 일정한 회복은 있었지만, 매출액은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8년에 비해 50% 내외에 그치는 등 곤경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패스트푸드’는 2020년 4월에는 86.7로 떨어졌다. 하지만, 포장 등의 수요 증가로 동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전과 동등 이상의 매출액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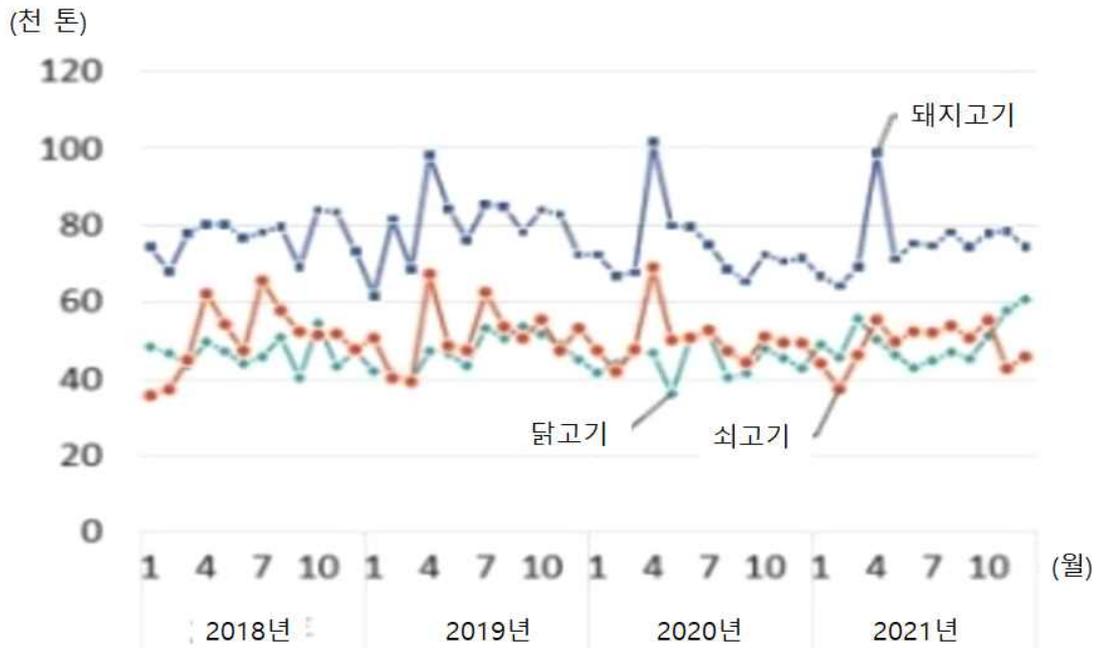
(3) 수입 동향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육류 수입량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육류 수입 가격은 2021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3). 이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수출국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식육 패커⁴⁾(packer)의 가동이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해상 운임 상승과 컨테이너 체류에 의한 물류 지체, 중국의 왕성한 수요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 엔화 약세 영향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이 수입 쇠고기 가격 인상이다. 2021년에는 전년의 약 1.4배까지 오르면서 가계 소비량 저하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표).

한편,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쇠고기처럼 상승하고 있지만, 쇠고기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계 소비량은 증가하였다. 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축종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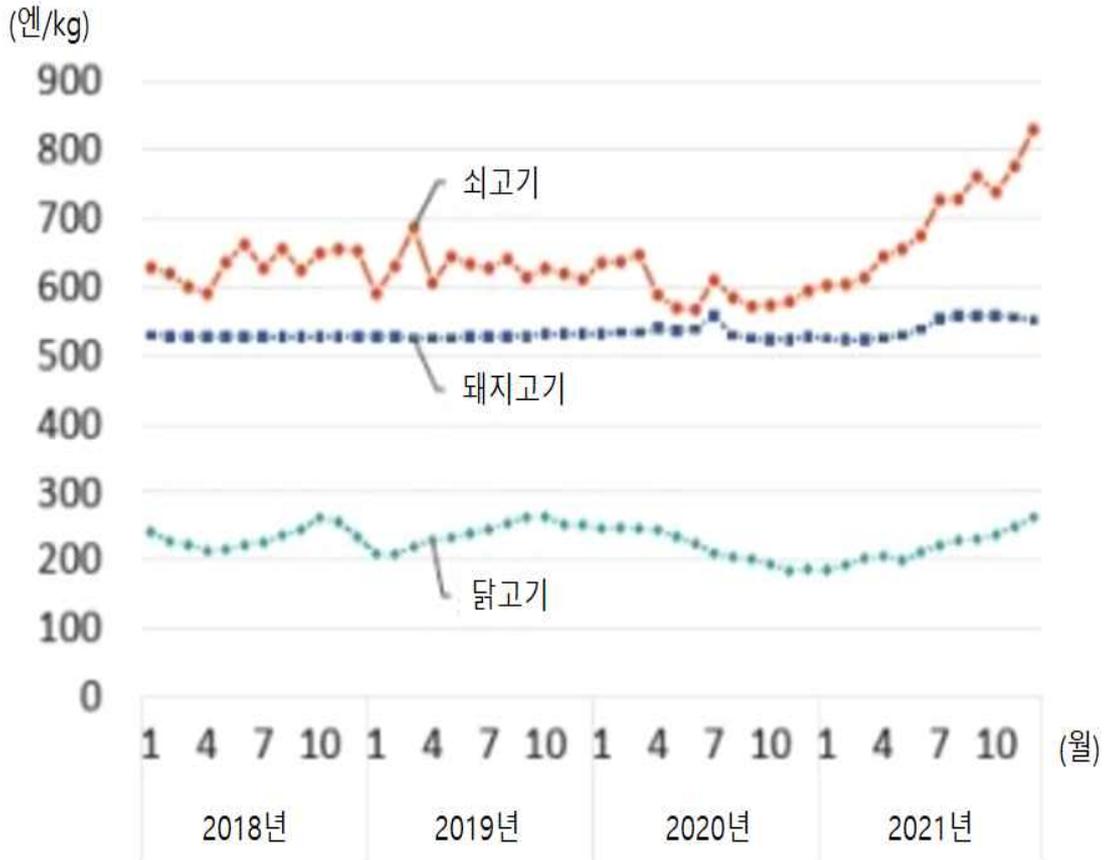
그림 2 식육 수입량 추이(냉동·냉장 합계)



주: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부분육으로 환산한 수치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4) packer, 가축의 도축해체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유통 담당업체. 미트패커란 비육우 등 가축의 도축해체, 커트(cut)처리, 햄·소시지 등의 가공 및 본래의 업무인 지육·부분육(cut meat) 그리고 햄·소시지, 다짐육(햄버거용 등)을 박스드 비프(boxed beef)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배송하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출처, 木村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p.329)

그림 3 식육 수입가격 추이(냉동·냉장 평균)



주: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부분육으로 환산한 수치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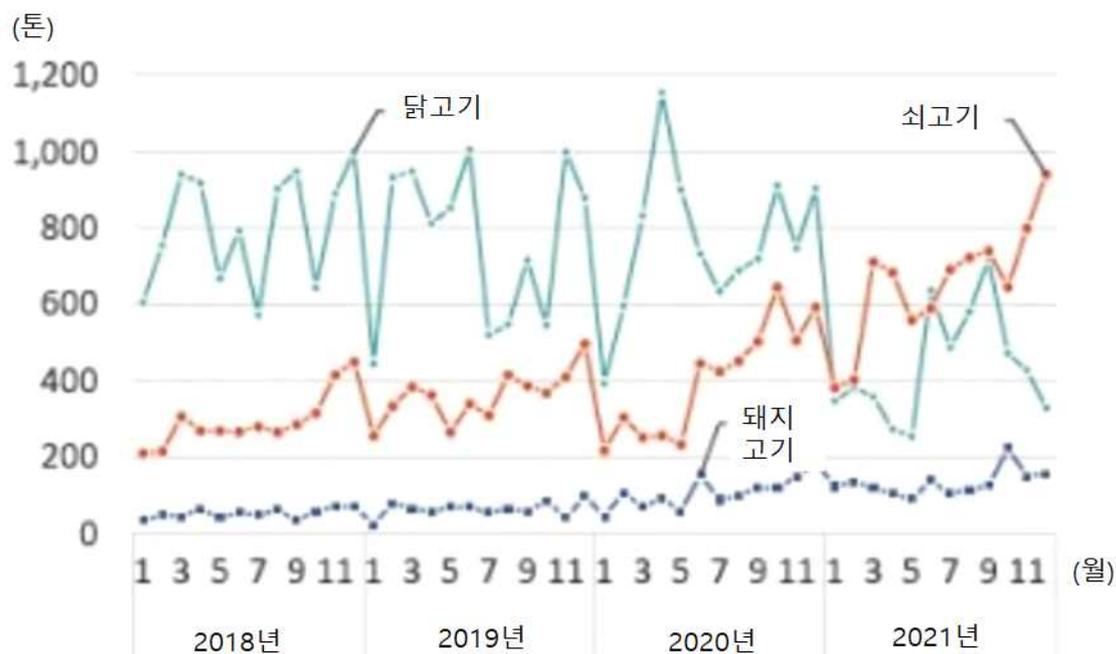
(4) 수출 동향

그동안 밝혀왔던 바와 같이, 쇠고기 국내 수요가 저조하였던 한편, 수출 물량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그림 4). 그 배경에는, 발송처에서 (1) 식당 수요 회복, (2) 그동안의 주체였던 업무 수요에서 소매점을 통한 가정 내 수요 확대, (3) e-커머스⁵⁾로 대표되는 새로운 채널 개척 등이 꼽힌다. 또한, 일본에서 수출 승인 공장이 늘어난 것과 현지 프로모션 활동 전개 등 관민 일체가 된 대응도 수출 확대에 이어졌다.

5) e-커머스(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구축된 가상의 상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활동 주체들이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전자매체를 통신망과 결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PC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무게중심이 모바일 쇼핑으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다. 쉽게 말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거래 행위라고 보면 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다만, 코로나19 사태 초기(2020년 전반)에는 홍콩, 미국 등 세계에서 발생한 록다운(Lock-down) 등의 엄격한 규제와 사회 혼란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글로벌 유통 상품이 된 화우 수출 동향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가격 조건이라는 종래의 요소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계정세에 좌우되는 것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4 식육 수출량 추이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5) 코로나19 사태의 특징적인 상황

가. 화우 지육 시세의 움직임

화우 지육장세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변화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았다 (그림 5). 코로나 사태 이전에 1킬로그램 당 2,500엔 전후로 추이하고 있던 도쿄 시장의 지육 시세(A-4 거세)는 2020년 4월에는 1킬로그램당 1,688엔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인바운드 수요와 외식 수요 증발 및 수출량 급감 등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와 닭고기 시세는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화우와 같은 변화는 볼 수 없으므로, 비교적 영향은 경미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우는 대내외 수요가 급격하면서 현저하게 저하한 것이 재고 체류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지육가격도 크게 하락하였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성은 ‘화우 고기 보관 재고 지원 긴급 대책 사업’을 2020~22년도까지 3년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사업을 활용하기 시작한 2020년 하반기에는 역시 ‘국산 농림수산물 등 판매촉진 긴급대책 사업’의 ‘품목 횡단적 판매촉진 긴급대책 사업’ 효과로 말미암아 유통 사정이 나아졌다. 지육-달리 환율은 코로나19 사태 전과 동등한 수준까지 조기에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림 5 식육 도매가격(토쿄)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식육유통통계」, 「식조시장정보」.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나. 새로운 유통 채널의 대두

외출 자제와 접촉 기회 회피, 종업원 부족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생긴 사회 변화는 화우 고기 재고 지원 긴급대책 사업을 비롯한 각종 긴급 경제대책의 뒷받침 등에 의해 포장이나 고스트 레스토랑(ghost restaurant⁶), 식사 테이블이 없는 택배전문

6) 음식점의 새로운 영업 형태로 실제 매장이 없고 온라인 주문만 허용 하는 “고스트 레스토랑”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스트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방 공간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점포의 여가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많은 음식점은 감소하는 매출을 커버하기 위해 테이크 아웃 및 배달을 시작했다. 배달서비스 회사들도 온라인 입점 제안에 주력하고 있다. 이 추세에 따라 또한 지금까지 음식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고스트 레스토랑이라는 형태의 음식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고스트 레스토랑 업계 1위는 그로브릿지(Globridge)로 해당 업체는 400 개 이상의 고스트 레스토랑을 오픈하였으며, 해당 레스토랑은 온라인 배달 업계 주문 점유율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회사 “코우라(딜리버리 업계 최대 기업)” 와의 업무 제휴를 발표하는 등, 기존 레스토랑과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기존 소비자 인지도를 활용한 고스트 레스토랑 설립에 힘을 쏟고 있다.(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해외시장 정보, 2021년 7월 28일 게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577)

레스토랑) 등을 비롯한 새로운 수요나 업태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기존 유통 채널 확대에도 이어졌다.

그 좋은 예가 e-커머스에서의 도축·유통 확대이다. 소비 기한 내 재고 관리를 요하는 신선한 상품은 그동안 e-커머스와 친화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졌었다. 하지만,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개설한 통신판매 사이트인 ‘JA타운’에서는 채소나 쇠고기 수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6). 이들은 모두 정액(定額)으로 박스 내의 내용을 산지에 ‘맡기’는 주문 형태가 특징이며, 산지 측에서는 재고 관리가 불필요하게 되어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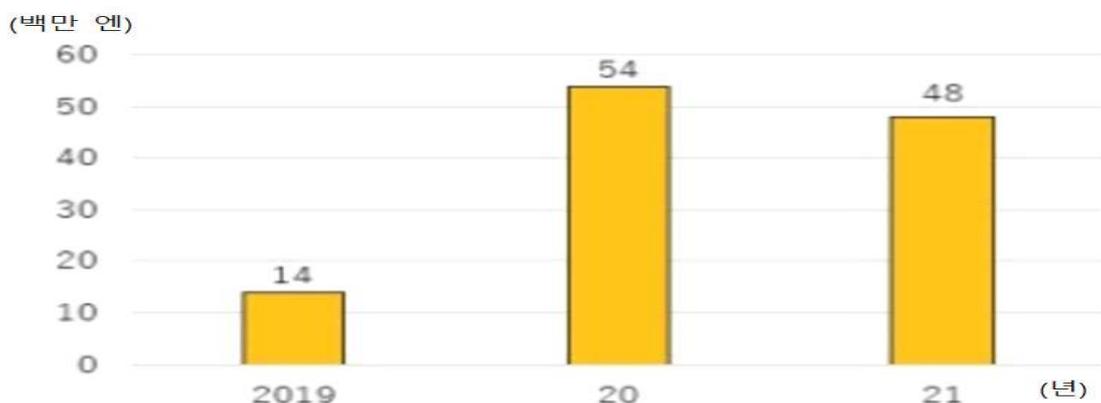
그 중에서도 화우는 긴급대책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포장 가공 거점에서 슬라이스 등을 통해 컨슈머 제품을 제조하여 JA타운을 경유한 냉동 유통을 한 결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7). 이는 판매 채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고기는 냉장 유통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을 깨고, 냉동으로도 수요가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림 6 JA타운 유통 금액 추이(전체)



자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그림 7 JA타운 유통금액 추이(화우)



자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다. 서플라이 체인 레질리언스

코로나19 사태는 리모트워크(Remote Work)⁷⁾와 웹 회의, 혹은 전자 결제 등의 급속한 보급과 침투를 비롯하여 일본 사회에 많은 행동의 변용을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축산 산업에서 상징적이었던 것은 서플라이 체인 레질리언스⁸⁾(resilience,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의 대응 능력)에 의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클러스터⁹⁾의 발생으로 제조와 짐 나누기(소분할 등), 배송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점이 있으며, 가공할 수 없었으며 배송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사태가 빚어졌다.

또한, 해외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자 부족으로 여행자의 가동 축소, 항만의 하역 작업 휴지(休止), 컨테이너 체류에 따른 해상물류 대란 등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후의 우크라이나 위기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배경으로 연료와 곡물 조달 가격 급등으로 합리적인 수입육이 매장에 진열되지 못하는 이른바 미트 충격도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식품 유통업계에서 진전되어 온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¹⁰⁾)’의 흐름이 거꾸로 작용한 예이다, 이로 인해 생산부터 처리·가공, 유통 판매, 배송에 이르는 공급망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표층적인 효율화를 추구할 뿐 아니라 산업으로써 “안되는 것=레질리언스(대응능력)”이라는 개념을 구비하여, 축산물 유통을 분단시키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7) 리모트워크란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으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보다 넓은 의미이다. 일반적인 업무가 사무실이라는 정해진 공간에서만 이뤄진다면, 리모트워크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리모트워크는 임대료가 비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11~2012년경부터 등장한 형태로, 실리콘밸리에서 리모트워크가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유능한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실리콘밸리의 비싼 사무실 및 주거비용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실리콘밸리 외부의 다양한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해, 원격으로 협업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개인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고용주나 기업 입장에서선 임차료를 아낄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원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8) 환경 시스템에 가해진 충격을 흡수하고 그 시스템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 변화나 교란에 대응하는 생태계의 재건 능력. 1973년 캐나다의 생태학자 홀링(Holling, C. S.)이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따위의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2000년대 이후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출처: 네이버사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9) Cluster. 군체(群體), 집속체, 무리, 밀집해있는 다수의 무언가를 총칭하는 영단어.(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코로나19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상태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역자 주)

10)저스트인타임이란 입하재료를 재고로 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상품관리방식. 재고를 0으로 하여 재고비용을 극단적으로 압축하려는 것으로 재료가 제조라인에 투입될 때 맞추어 납품업자로부터 반입되는 이상적인 상태에 접근하려는 것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3. 앞으로의 과제와 앞으로 축산의 방향

(1) 생산 비용 상승과 가격 반영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¹¹)의 영향에서 회복¹²)하고 있는 중국의 곡물 수입량 증가, 올해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심지어는 가파른 엔화 약세 등을 배경으로 축산에 대해서는 배합사료와 에너지 등 생산비 상승이 생산자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등에 떨어진 자재 가격 급등 여파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각종 긴급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에 적절한 반영에 대해서는 묘수가 없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선한 상품 시세가의 비용 전가는 매우 어렵다는 점과 물가 급등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이 축산물 소비 위축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단기·장기 양면에서 판매 가격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단기 대책으로는 시세에 관계없이 연간 고정가격 등의 계약에 의해서 가격 조건을 정하고 있는 거래에 대해 고객에 대한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장기 대책으로는 국산품 수요 확보와 가격 상승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식량 안전보장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해 증진 활동을 추진한다. JA 전국 중앙회와 연계하여 10월을 ‘국내소비 국내생산 월간’으로 규정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또 외식 유저나 가공업체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수입품이 지닌 가격 이외의 우위성, 즉 접근성과 균일성, 규격 등 원료의 부가가치 향상을 추진하여 수입 원료에서 국산 원료에 대한 전환을 도모한다.

11)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돼지 전염병으로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며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선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감염된 돼지는 열이 나고 피부에 푸른 반점과 출혈이 생긴다. 급성형은 발병 후 9일 안에 거의 100% 죽는다. 치사율이 5~55%인 구제역과는 비교도 안 된다. 급성이 아니어도 폐사율이 최대 70%에 이른다. ASF 바이러스는 고기를 얼린 상태에서 1000일, 소금으로 절인 상태에서 1년 이상 살 정도로 생존력도 높다. 감염 경로는 진드기, 야생멧돼지, 음식물쓰레기, 배설물, 각종 육가공품 등이다. 공기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사람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돼지고기, 육가공품을 먹어도 문제없다. 다만 바이러스가 있는 잔반을 사료로 먹은 돼지는 곧장 감염된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탓에 해외에서도 ASF에 전염된 돼지는 100% 살(殺)처분한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ASF가 상륙하면 삼겹살 한 근에 10만원이 될 것”이란 얘기가 양돈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업계에선 한 번 ASF가 발병한 농장은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도 ‘돼지농장’ 간판을 다시 달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장을 소독해도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살아남기 때문이다. 동유럽에서 ASF가 발병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축사에 돼지를 넣었으나 모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12)중국의 ASF로 부터의 회복 과정과 관련 정책에 관해서는 허 덕, 김태련, ‘중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목표와 관련 문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6호(2021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제3장 돼지고기 공급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식량 자급력= ‘국내 소비 국내 생산’ 을 기축으로 하는 축산 공급망 구축

향후 일본의 축산물 수요는 1인당 섭취 증가 등으로 인해 당분간 급격하게 감소되지는 않겠지만, 2030년경부터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고령화도 진행되어 수요도 전환기를 맞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반환점으로 2030년까지 여러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 해결방안 중 하나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한 서플라이 체인 취약화에 대한 대응이다. 식품이 언제든지 때마침 필요한 만큼 손에 들어올 상황은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사회가 알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농림수산성이 진행하고 있는 ‘식품 자급력’, 즉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식품의 잠재 생산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료의 국내 자급체제 강화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농축산물의 내외 가격 차는 경쟁력 차이가 아니라 식량 안정 확보의 비용임을 이해하여, 식품 안전 보장 관점에서의 대응도 필요하다.

또한, 고기는 채소나 과일과 달리 수확하여 바로 식품으로서 유통시킬 수는 없다. 가축을 직접 도축하는 식육(식품)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 기능을 가진 전국식육센터는 상당수가 식육의 유통 합리화와 근대화를 목적으로 소화(昭和) 50년(1975년도)대에 설치되어, 갱신 시기를 맞고 있다. 취약한 재무 기반, 불안정한 수지 구조 요원과 같은 문제 등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개소 100억 엔 이상을 필요한 시설 갱신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우려된다. 이는 각각의 경영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본 축산 공급망의 보틀 넥(bottle neck)이 될 수 있는 만큼, 생산 기반 및 유통 판매에 대한 이치 등 지속 가능한 방식을 산업 전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산물 수요는 외출 자제에 의한 ‘집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 등에 따른 소비자의 외출 자제와 인바운드 수요 급감 등으로 외식산업은 힘든 상황이다. 국가의 경제 대책의 뒷받침 등으로 새로운 수요나 업태가 창출됨과 동시에 e-커머스가 축산물 유통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축산물 공급망에 대해서 효율화뿐만이 아니라 분단시키지 않는 구조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이 지속될 상황에 따른 대책이나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축산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지구 환경대책,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국제 사회가 ‘지속 가능성¹³⁾’을

13)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란 의미로 한마디로

키워드로 더 변화되는 가운데, 예컨대 앞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농업 고등학생이 경영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2050년에 지금과 같은 축산 사업 모델이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축산 사업은 해외에서 사료원료 조달에 시작되고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매우 장대한 밸류 체인이며, 모든 국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과제가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 명확한 시나리오를 그릴 수 없는 주제도 적지 않지만, 이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업 지속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육우 사육과 메탄가스 발생 문제나 동물복지에 대한 대응 등을 거론하면서 축산에 비화한 상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책무를 수행하고 그 정보를 올바르게 공개하며 생산자에게도 소비자에게 더 나은 미래가 되도록, 일본 축산의 미래상을 그릴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농협연합회는 올해부터 축산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전임자를 배치하고, 경축제휴 확대, 지역 순환형 사업 구축, 환경 조화형 농업 실현 등의 대응을 가속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과 테마 속에서, 우선은 ‘건전한 사람·가축’, ‘상호 부조, 순환형 사업’, ‘풍요로운 지구 환경’, ‘투명한 경영’ 이라는 4가지 가치로 접근하기로 하였다(그림 8).

향후, 축산 산업 전체가 보다 나은 사회, 더 나은 축산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추진하여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미래 유지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이 용어는 로마클럽이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인간 활동, 경제나 경영, 기후와 환경, 국가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 등을 추구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기업 경영에도 화두가 되고 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확산되고 사회책임투자(SRI) 펀드가 늘어나는 건 이 때문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그림 8 축산 서스테이너빌리티 추진(지속가능한 축산사업에 필요한 4가지 가치)



자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1편) 일본의 농업 현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2편) 일본의 곡물 수급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3편) 일본의 축산물 및 사료 수급 현황과 주요 대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4편) 일본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신동철, ‘[특집: 일본의 농업] (제5편) 일본의 TPP 추진 경과 및 곡물 관련 대책’,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2020년 9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1편) 최근의 세계 식육 수급 동향과 일본의 식육 수입 상황’,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2호(2020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코로나19가 각국 낙농산업에 미친 영향-세계, 일본, 미국, EU, NZ, 중국-’, 「해외곡물시장동향」, 11권 2호(2022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김태련, ‘중국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목표와 관련 문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6호(2021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TI 농식품수출정보, 해외시장 정보, 2021년 7월 28일 게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577)

木村勝紀 著, 1999, 「アメリカ 肉牛・牛肉産業と日本の畜産」, (株)オールインワン出版部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畜産総合対策部, ‘【特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畜産業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畜産業界に与えた影響’,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10월호, 農畜産業振興機構

농림수산성, 「식육유통통계」

농림수산성, 「식조시장정보」.

일반사단법인 일본푸드서비스협회, 「외식산업시장동향조사」

재무성, 「무역통계」

총무성, 「가계조사」

나무위키, <https://namu.wiki/w/>).

네이버사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